

광주에 국내 최대 이우환 컬렉션

시립미술관 이 화백 작품만 37점 소장 하정웅 명예관장 5차기증에 20점 포함

‘점 하나를 찍는데 걸린 시간이 60년.’ 넓은 캔버스에 점 몇 개만 찍었는데, 그림이 된다. 작품 가늠만 수 억원에 이르지만 사겠다는 애호가들이 줄을 선다.

현대미술의 메카인 뉴욕 구겐하임미술관이 아시아 작가 중 세번째로 회고전을 열어준 인물. 점 그림으로 세계적 화가가 된 작가 이우환(76)씨 얘기다. 광주에서 세계 미술계로부터 인정받는 한국 대표작가인 이우환씨의 작품 세계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게 됐다.

10일 광주시립미술관에 따르면 이우환 작가의 1980년대 석판화 작품 ‘in the ruins’를 비롯해 ‘Dialogue’ 시리즈 등 2012년 최근 작품까지 20점을 기증받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1984년 작 석판화 ‘in the ruins’ 5점 ▲1990년 ‘with winds’로 불려진 ‘바람’ 시리즈와 1992년 조응(Correspondence) 시리즈 각 1점 ▲2006년 석판화 ‘默’(silently) 4점 ▲2008년~2012년에 이뤄진 ‘대화(Dialogue)’를 주제로 한 연작 8점 등이다.

시립미술관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이씨 작품은 1970~1980년대 ‘점’과 ‘선’ 시리즈 13점과 1990년대 초 ‘출항지’ 시리즈 4점 등 17점. 이번 기증 작품까지 포함하면 이씨 작품만 모두 37점을 소장하게 돼 국내 공립 미술관을 통틀어 최대 규모 컬렉션을 갖추게 됐다.

특히 이번 기증으로 시립미술관은 이씨의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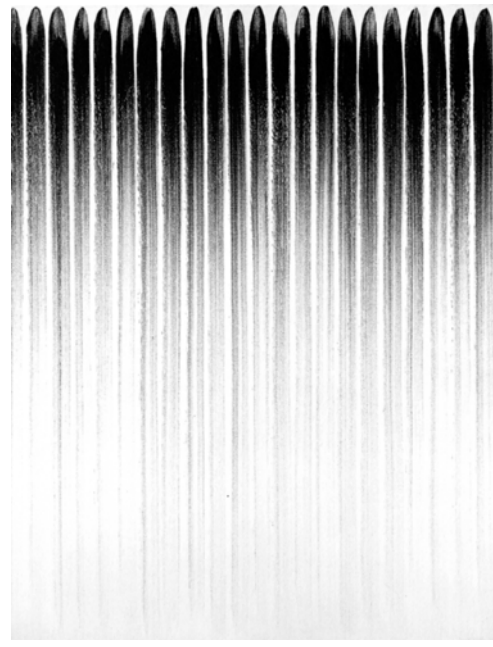
년~80년대 작품 ‘점’과 ‘선’, ‘바람’ 시리즈에 이어 90년대 초부터 시작한 ‘조응’을 타이틀로 삼은 연작 시리즈와 2000년대 ‘대화(Dialogue)’를 주제로 한 신작까지 모든 작품 형태를 보유한 국내 유일의 공립미술관으로 자리잡게 됐다.

시립미술관은 기증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작가 특별전을 여는 것도 검토중이다.

지역 문화계 일각에서는 전국 공립미술관 중 이 작가의 작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상설 전시관을 운영하는 등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이씨 작품은 재일교포 하정웅 명예관장의 5차 기증 작품에 포함된 것으로, 시립미술관은 조만간 기증식을 열겠다는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우환 작 '선으로부터'



◆이우환은=

1936년 경남 함안 출생으로, 일본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1960년대 말부터 70년에 걸쳐 일본에서 유행한 ‘모노화(단색화) 운동’을 이끌었다.

일본은 2005년 현대미술 100년을 맞아 이씨를 대표작가로 선정하고, 2010년 5월엔 일본 나고야시에 이우환 미술관을 건립했다.

지난해 6월 미국 구겐하임미술관에서 아시아 작가로는 백남준, 중국 차이커창에 이어 세번째로 개인전을 갖기도 했다.

(한국미술사기념사업회의 2011년 ‘한국 미술계를 이끄는 분야별 설문조사’ 결과, ‘한국을 대표하는 생존작가’ 분야에서 1위에 올랐다.

전남도, 초롱산업 등 6곳과 427억 투자협약



전남도가 식품·목재·신재생에너지·부품산업 등 6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는 10일 도청 서재 필실에서 박준영 지사와 (주)초롱산업 등 6개 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427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른 고용규모는 338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초롱산업은 장흥 바이오피드 산단단지 내 3만3000㎡ 부지에 250억원을 투자해 다시마 가공식품 및

화장품 제조시설을 건립하고, (주)한국의집은 나주 노안면 8000㎡ 부지에 40억원을 투자해 한옥용 목재 및 특수제재목을 생산한다.

또 (주)이제이 이노바텍은 담양 에코하이테크농공단지 내 6000㎡ 부지에 35억원을 투자해 태양열 집열기 및 축열기를 제조하고, (주)에스알티는 곡성 석곡면 8000㎡ 부지에 34억원을 투자해 폐자원을 활용한 재생유를 생산한다. /오광록기자 kroh@

영암 F1경주장 기업광고 받는다

영암 F1경주장(코리아인터내셔널 서킷) 내에 7월부터 기업광고가 설치된다.

F1 조직위는 10일 “기업광고는 자동차·타이어 등 자동차 관련 기업이나 도정 참여기업 위주로 우선 20개기업만 배정하고 수시로 업종별 대표기업을 선정해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고관의 위치는 노출효과가 뛰어난 상설코스 주변이고, 광고료는 1년 기준으로 개소당 500만~2000만원선으로 타 스포츠 광고료(1000만~5000만원선)보다 저렴하다. 다년계약이나 2개 이상 설치하면 추가 할인율을 적용한다.

또 광고 기업에는 F1 홈페이지 배너광고권과 경주장 입대 시 우선 예약권을 보장한다. /오광록기자 kroh@

한국 ‘행복지수’ OECD 34개 국가중 32위

‘행복지수’라는 척도로 환산된 우리나라 국민의 총체적 삶의 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 가운데 거의 ‘꼴찌’와 닮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보건사회연구원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OECD국가 삶의 질 구조에 관한 연구’(이내찬 한성대 교수) 논문에는 OECD 34개 국가에 대해 삶의 질과 연관된 19개 지표의 가장 합계인 행복지수를 구해 비교한 결과, 한국은 10점 만점에 4.20으로 뒤에서 세 번째인 32위로 나타났다. /연습스

광주~나주·담양·장성·화순·함평

내년부터 광역대중교통 환승 할인제 도입

빠르면 내년 1월부터 광주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나주와 담양·장성·화순·함평 등 광주 인근 자치단체 농어촌 버스와 마을버스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광역교통 환승 할인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10일 “광주시와 인접한 시·군을 왕래하는 지역주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광역대중교통 환승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계획중인 환승권역은 광주와 나주, 담양, 화순, 함평, 장성 등 전남 5개 지자체이며, 광주 시내버스 14개 노선(65대)과 농어촌버스 45개 노선(253대)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광주·전남도 광역협의회 운영을 통해 8차례

에 걸쳐 광역대중교통 환승 제도를 논의했으며, 지난 3월에는 광주권 광역대중교통 환승 운영을 발주해 다음달께 운영 결과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환승 요금 등의 재정지원과 구체적인 환승 방법 등은 운영결과가 나온 뒤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오는 9월 광역대중교통 환승 모델 협의를 통해 광주시와 전남 5개 자치단체가 환승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광역대중교통 환승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광주와 인접한 시·군을 자주 왕래하는 주민들이 교통불편을 호소해온데다 지난해 9월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간 광주

전남 공동발전을 위한 합의문을 통해 광역대중교통 환승 모델이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2014년까지 시내버스 정류소에 이용객의 휴식 등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마련된 150개의 버스 쉼터(bus shelter·지붕이 있는 승강장)를 일제 정비하고 민자 유치로 통해 150개를 더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또 오는 27일부터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업소를 기존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해 등록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자동차등록 번호판 발급수수료도 20%(대형 1만2100원→9600원·중형 1만1000원→8800원·소형 3850~3000원) 인하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본덕IC~지평IC 8.9km 오늘 우선 개통

광주와 전남 서북부를 연결하는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가운데 본덕 교차로~지평 교차로 구간 8.9km가 11일 우선 개통된다.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은 본덕 교차로~임곡동 간 총 길이 18.5km 구간으로, 나머지 구간인 지평 교차로~오산 교차로는 오는 12월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난 2003년 10월 착공한 본덕 교차로~임곡동 구간은 총사업비 2835억원이 투입돼 폭 20m 4차선의 자동차 전용도로로 건설되며 현재 9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 구간에는 26개의 교량과 1개의 터널이

설치된다.

본덕 교차로~지평 교차로 구간이 개통되면 평동산단, 광주무안고속도로간의 연계 교통망이 구축돼 평동공단 활성화는 물론 광주무안고속도로의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도로 전 구간이 개통되면 호남고속도로로 장성 교차로~나주 혁신도시까지 소요시간이 1시간에서 30분으로 절반 가량 단축되고,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승촌보의 접근성도 개선돼 방문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나주는 물론 영암, 해남, 완도 등 전남 남부지역 주민들의 호남고속



도로 이용도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홍행기기자 redplane@

지산유원지 일대 ‘남도 전통문화 특구’로

장기간 침체돼온 광주 동구 지산유원지 일대에 한옥촌과 남도전통문화진흥원이 들어서게 등 ‘남도 전통문화특구’로 육성된다.

광주시는 10일 “무등산 자락 지산유원지 주변을 활성화하고 오는 2014년 준공 예정인 아시아 문화전당과 연계하는 관광인프라 형성을 위해 지산동 일대를 남도 전통문화특구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동구 지산동 지산유원지 일원 28만2000㎡ 부지에 전통문화 콘텐츠

센터와 남도전통문화진흥원, 오방색 한옥촌, 명인음식촌, 소리공연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남도의 전통 오감자원을 활용한 음식점과 한옥, 남도정원 등 문화시설을 조화롭게 배치해 방문객들이 남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남도전통 문화관광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한 뒤 재정투자자선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거쳐 본격 사업 추진에 착수, 2015년 완료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은 광주시민과 만남의 날 행사에서 지산유원지 일대 상가 주민들이 활성화대책을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남도 전통문화 특구가 조성될 경우 문화의 전당, 중심사지구, 지산유원지 지구를 연계한 3각벨트의 관광자원화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없드려 사죄 드립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의 낱품 비리 사건으로 인하여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실망을 안겨 드린 데 대하여 통렬히 반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습니다. 깊이 참회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새로 태어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 임직원은 더욱 엄정한 도덕률로 무장하고, 엄격한 청렴행동 강령을 제정하여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비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부끄러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과감한 내부 개혁을 서둘러서 사랑받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